



2026. 8. 11 (화)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RA 김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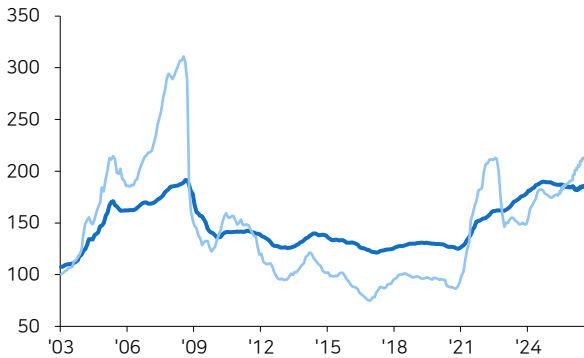
hyunbee.kim@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5.6p (+0.1p WoW)

(pt) — 신조선가 지수
— 중고선가 지수



중국 내수 후판가격

513.0달러 (+1.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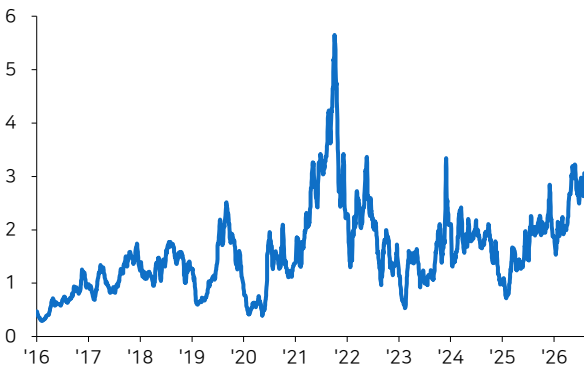
(달러/톤) — 중국 내수 후판가격
..... '10~'19 평균



건화물운임(BDI)

3,089.0p (+32.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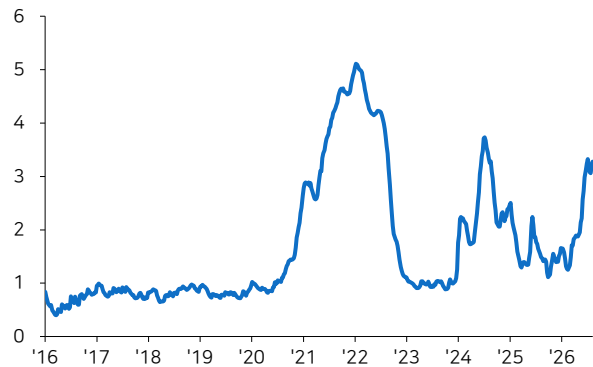
(천pt) — BDI



컨테이너운임(SCFI)

3,276.1 (+70.2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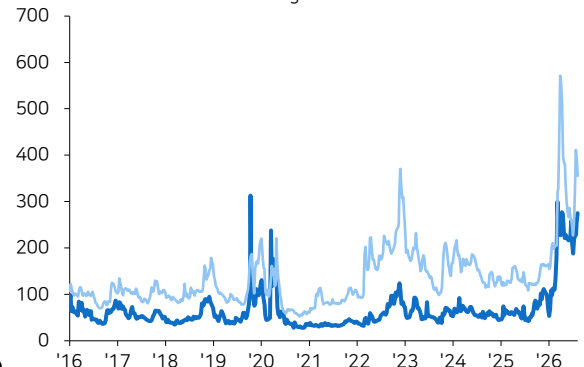
(천pt) — SCFI



VLCC Spot Rate

274.6WS (+19.7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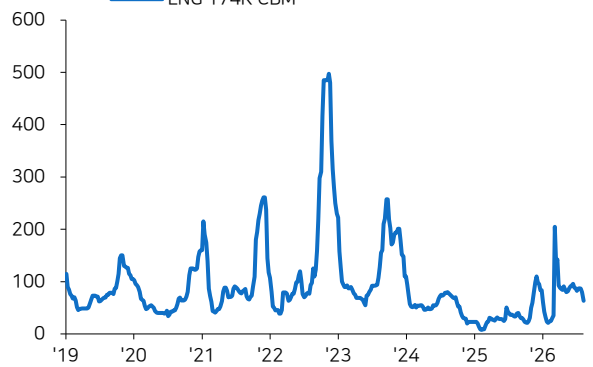
(WS) — VLCC Earnings
— Aframax Earnings



LNG Spot 운임

63.4천달러 (-16.4p WoW)

(천달러/일) — LNG 174K CBM



©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Trump extends historically-long Jones Act waiver with limitations (TradeWinds)

<https://zrr.kr/QIHku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연안 내 미국 건조 선박 운항을 의무화한 존스법(Jones Act)의 외국적 선박 운송 면제 조치를 90일 연장한다고 보도됨. 이번 조치는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연료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 3월 도입된 이후 역대 최장 기간 이어져 온 면제 기한을 늘린 조치이나, 군과 핵심 산업의 필수 물자 접근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개별 사례별 검토 등 새로운 제한을 추가한다고 전해짐. 미국 해운업계와 관련 단체들은 이번 면제 연장이 연료 가격 인하 효과를 내지 못한 채 자국 해운 산업과 조선소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알려짐.

원자력 추진선 '규제 안개' 걷힌다...SMR 상용화 '청신호' (이데일리)

<https://zrr.kr/4wKzAy>

미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소형 모듈 원자로(SMR) 탑재 원자력 추진선과 부유식 소형 모듈 원자로(FSMR)의 국제 표준화를 논의하는 '아틀라스(ATLAS) 이니셔티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상용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됨. 정부가 2035년 SMR 선박 건조 착수를 목표로 지원하는 가운데, HD현대,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사들도 개념설계 기본인증 획득 및 표준 플랫폼 개발 협력 등 관련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해짐. 다만 실제 상업 발주와 국제항로 운항을 위해서는 안전 규제, 항만 입출항, 손해배상 책임 등 복잡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하므로 본격적인 상용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으로 알려짐.

HD 현대중공업, 필리핀 신규 호위함 수주전 진입 (글로벌이코노믹)

<https://zrr.kr/8dIT2W>

HD현대중공업이 2026년 하반기 필리핀 국방부의 신규 후속 호위함 발주 사업 수주를 목표로 영업 활동을 추진하며 해외 방산 영토 확장을 모색한다고 보도됨. 기존에 인도한 호세 리잘급과 건조 중인 3,200톤급 미겔 말바르급에 이어 동일 플랫폼의 후속 함정을 추가 도입할 경우 승조원 교육과 정비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수명 주기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전해짐. 다만 실제 계약 성사 여부는 필리핀 정부의 최종 승인과 예산 배정 절차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으로 알려짐.

한화오션, 칠레 '극지 조선 거점' 육성 구상...잠수함 넘어 MRO-공급망까지 (더구루)

<https://zrr.kr/hqAlna>

한화오션이 칠레 국영 조선소 ASMAR를 거점으로 남미 및 남극·극지 해양산업을 아우르는 장기 조선산업 파트너십 구축 구상을 제안한다고 보도됨. 구체적으로는 209급 잠수함 교체 사업을 위한 '오션 2000' 및 호위함 공동 설계 제안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쇠빙선 건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칠레와 극지선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ASMAR를 MRO 및 물류 허브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라고 전해짐. 단순한 완성품 수출을 넘어 현지 엔지니어 공동 설계 참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편입, 핵심 광물 협력 등을 통해 칠레의 지속 가능한 조선 생태계를 구축하고 양국 간 해양산업 협력을 강화할 방침으로 알려짐.

한화오션·한화에어로, 美해군·해병대 중형상륙함 프로젝트 공급망 합류 (더구루)

<https://zrr.kr/8dzu7S>

한화 필리조선소가 미 해군의 22억 달러 규모 중형상륙함(LSM) 도입 사업 공급망에 합류하며 미국 군함 건조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한다고 보도됨. 토트서비스가 주관하는 이번 LSM 프로그램에서 필리조선소는 초기 건조 물량을 맡은 볼링거 및 핀 칸티에리에 이어 잔여 옵션 물량 수주나 블록·모듈 공급 등 핵심 파트너로 참여할 관측이 제기된다고 알려짐. 국가안보 다목적 선박(NSMV)과 해상 미사일 시험 계측선(MRIV) 건조 사업에 이어 최전선 해군 함정 생태계까지 진입하면서, 미국의 '조선업 재건(MASGA)' 정책 속에서 방산 거점으로 빠르게 도약하고 있다고 전해짐.

한일 정부 '조선 담당 과장급 회의' 7년 만에 부활 추진 (조선비즈)

<https://zrr.kr/kv2dMA>

한국과 일본 정부가 2019년 이후 중단되었던 조선 담당 과장급 회의를 올해 안에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됨. 이번 회의 재개는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글로벌 조선업계에서 양국이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한 일본 측의 요청으로 추진되었으며, 일본의 해운·기자재 원천기술과 한국의 선박 건조 경쟁력 및 LNG 운반선 강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전해짐. 2019년 한일 관계 악화로 중단되었던 철강 및 가스 분야 협의 채널이 이미 재가동되어 있는 가운데, 이번 조선 협의체까지 복원되면 양국 간 실무 협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으로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